

(구)충남도청사 본관 문양 도안의 상징성 연구

김민수

(서울대 디자인학부 부교수)

주제어 : 충남도청사, 조선총독부, 지자체, 문양, 문장, 도안, 상징성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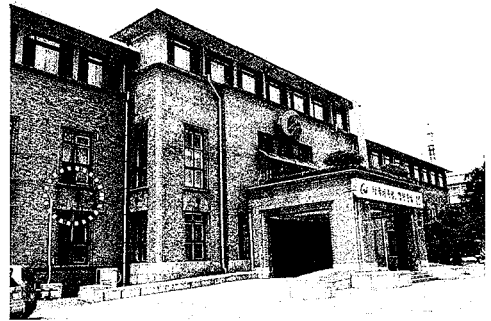
1-1. 연구 목적과 배경

이 연구는 (구)충남도청사(이하 충남도청사) 본관에 새겨진 문양 도안의 상징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충남도청사는 2012년 홍성·예산으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70여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도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과 보존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국회에서 ‘도청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정부가 매입해 근대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박물관으로 활용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적 기록물로서 도청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학술연구가 요청된다.

오늘날 충남도청사는 3층으로 되어 있으나, 1932년 건립 당시에는 벽돌식 2층 구조였다.(그림 1) 그 후 1960년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위에 증축되어 현재의 구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붕 환기탑과 같은 일부 형태가 변경되었지만, 도청사는 건립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잘 보존된 건물이다. 건물 외부 마감재

로 사용된 스크래치 타일은 건립 후 7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황금색을 발하고 있고, 많은 실내 장식물들도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건축사적 가치로 인해 도청사는 2002년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1> 도청사 정면 전경과 외벽 문양 표시

그러나 그동안 도청사 연구는 주로 건축역사학적 가치와 평가에 치중되었던 반면, 세부적인 문양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는 미흡했었다. 건물 외벽과 1층 현관 천장, 홀 바닥과 천장, 2층 계단실, 복도 등 곳곳에는 일제 문장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 문양들은 시각적으로 도청사 건물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양들은 도청사의 건축적 비중에 비하면 사소한 장식 요

소 정도로 간주되어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했다. 다만 단편적으로 서로 엇갈리는 주장만 분분했다. 예컨대 지난 1990년대 초에 이 문양은 조선총독부 문장이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¹⁾ 반면에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한 조형적 수단으로 특별한 의미나 상징성을 내포하지 않은 장식 도안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었다.²⁾

그러나 이 주장은 건물과 장식 간의 관계에 대한 오랜 건축사적 전통에서 볼 때,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르네상스시대 이래 건축은 목적에 부합되어 각각의 부분들이 전체를 위해 조화를 이루고, 용도 내지는 맥락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기 때문이다.³⁾

이에 연구자는 다음의 의문점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충남도청사 문양은 일제 조선총독부 문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이는 특별한 의미나 상징성을 내포하지 않은 단순한 건축적 장식에 불과한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을 얻고자 연구자는 충남도청사의 건립과정, 부지의 장소성, 건축내역 등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도청사에 새겨진 문양 도안의 상징적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청사 문양을 조선총독부 문장과 조선 내 지자체 문장 중 확실한 자료가 남아있는 경성부청 문장과 비교한 다음에 일본 지자체 문장들과의 관련성을 추적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방법, 용어의 정의

충남도청사 본관에는 여러 유형의 장식 문양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도청사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특별한 문양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이 문양은 총 52개소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53개소였으나 1981년에 시험 삼아 한 개를 제거하여 현재 52개소가 남아 있다.⁴⁾ 또한 도청사 내부에는 이 외벽 문양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양들이 1층 현관 천장, 홀의 바닥과 천장, 2층 계단실과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응접실 천장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대상에 대해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도청사 외벽에 부착된 문양을 중심으로, 내부에 존재하는 관련 문양들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 의미와 상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본관 내부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응접실 내의 문양은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⁵⁾ 이 외에 계단 난간이나 창문들과 같은 일반적 유형의 건축적 장식들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실제 현장답사와 도상 이미지 분석, 관련 문헌 조사를 하고자 한다. 문양 분석에 있어 조선 내 지자체 문장과의 비교는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의 한계로 인해 경성만을 대상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이 연구는 '문양(紋樣)과 문장(紋章)'을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용례에서 이 두 용어는 구분이 없이 뒤섞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문양이란 동식물 혹은 기타 자연 현상의 이미지에 기초해 단순히 양식화된 무늬의 생김새를 지칭하고, 반면 문장은 문양과 양식

1) 대전매일신문, “道廳舍에 日帝잔제”, 1992.8.15.

2) 徐奉植, “忠南都廳 本館壁面 裝飾에 대한 檢討”, 『郷土研究』第17輯, 忠南郷土研究會, 1995, pp. 66-74.

3) L. B. Alberti, 『The Architecture of Leon Battista Alberti』, T. Edlin, 1726.

4) 위의 글, p. 67.

5) 徐奉植의 연구에 실린 사진을 보면, 2층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응접실 천장에 3개의 다른 문양이 존재한다. 위의 글, pp. 70-72.

화된 생김새가 같지만 가문, 도시, 국가 등의 집단 정체성을 표상하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2. 도청사 건립과정, 장소성, 건축내역

2-1. 건립과정

대전 시사에 따르면, 대전은 경부선(1904)과 호남선의 개통(1914)에 따라 기존 회덕군과 진잠군, 공주에 속한 일부 지역을 통합한 식민지 신도시인 대전면(1914)에서 출발했다. 대전면은 1917년에 지정면이 되었고, 1931년 4월에는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대전읍으로 승격되었다. 이 무렵 대전은 교통의 요지로서 중부지역 최대 농산물 집산지이자 신흥 상공업도시로 변모하면서 일본인 거류민 수가 급증하는 대도시로 커졌다.

일인들은 1905년 11월 거류민회(居留民會)를 조직한데 이어 1914년에 대전면협의회(大田面協議會)를 창설해 대동천 개수, 대전천 제방공사, 공주와 금산을 잇는 도로개설 등 시가지 정비해 나갔다.⁶⁾ 1920년 6월에는 면제개정협의회(面制改正協議會)가 설치되어 도시계획과 도시시설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대전의 도시계획은 1924년 7월에 창립된 대전번영회(大田繁榮會)와 면제개정협의회가 함께 1926년 7월에 '대전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⁷⁾ 이로써 대전은 중부권 경제수탈의 거점이자, 일본거류민이 실권을 장악한 식민지 신도시로서 충남도청 이전지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도청사 건립 시기는 일제 식민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중대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공주 소재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

한 것은 1931년 1월 13일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5대 총독 재임 시기였지만,⁸⁾ 준공은 이듬 해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 제6대 총독⁹⁾ 때 이루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도청사 신축공사는 1931년 6월 15일에 기공식을 갖고, 1932년 8월 29일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있다.¹⁰⁾ 흥미로운 사실은 충남도청사의 기공식 날짜가 사이토 총독의 임기종료 하루 전날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도청사 기공식을 그의 재임기간 마지막 치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도청사는 사이토 총독 임기 말에 계획되었지만 우가키 총독 때 완공되었다. 이는 도청사가 일제 식민정책이 제2단계 회유조정 및 문화정책期(1919-1931)를 거쳐, 제3단계 병참기지화 및 전시총동원 시기(1931-1945)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건립되었음을 말해 준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는 일제가 1920년대 말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주사변(1931)을 고의로 일으켜 중국침략과 만주국을 건립(1932)하는 등 팽창주의 침략전쟁 체제로 전환하고,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때였다.

도청사 건축결정과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기록이 1931년 『조선과 건축』 6월호에 남아있다. 이 사료는 청사부지 선정, 건축설계, 땅 고르는 지균(地均)공사, 공사착수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8) 위의 책, p. 648.

9) 사이트 총독 재임기간은 1929.8.17-1931.6.16.이며, 후임 우가키 총독 재임기간은 1931.6.17-1936. 8.4.이다.

10) 『朝鮮と建築』 第11輯 第10號, 1932, p. 20. 이 사료에 도청사는 '1932년 8월 29일 준공, 공사비는 17만65원 55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반면 『대전시사』에서는 도청사 준공일과 공사비가 '1932년 5월 30일 준공, 총건축비 35만9천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大田市史』 第1卷, pp. 648-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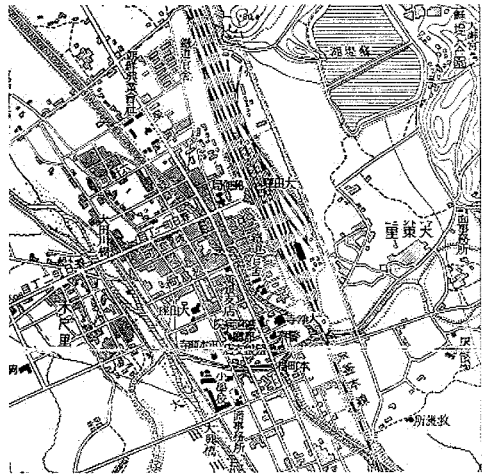
6) 『大田100年史』 第1卷, 2002, p. 418.

7) 『大田市史』 第1卷, 1992, pp. 641-648.

“청사부지는 이마무라(今村) 내무국장이 답사하고, 지방과장이 측량관과 함께 5월 30일 현지에 도착해 실측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6월 1일 오후 대전군청 서쪽에 있는 김갑순(金甲淳) 소유의 토지와 대전역 앞 직선 도로와 맞닿은 보리밭 6천 평이 도청사 부지로 결정되었다. 도청사는 총독부 건축과에서 설계했는데, 벽돌로 된 2층 구조로 총 1400평, 총 공사비는 약 3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면은 55칸(한 칸은 약 1.82m), 양 측면은 33칸의 울타리를 만들고, 벽돌 위에는 장식 벽돌을 덧붙여 모던(modern)한 도청을 설계하였다. 도로와 맞닿은 곳에 정문을 세우고, 20칸 안쪽 들레에 철책을 둘러, 철책 안 공터에 작은 공원을 조성한다. 또 청사의 6천평 및 관사부지 4천평은 김갑순과 대전읍의 기부로, 이로써 오랫동안 속을 썩었던 도청 부지도 해결을 보게 될 것이다. 부지 지균(地均)공사 청부입찰은 이전실행회(移轉實行會)에 의해 20일 오후 2시 읍사무소에서 지명 입찰에 붙여 2,120원에 萩原榮三郎씨에게 낙찰되었다. 6월 19일 끝날 예정으로 지균공사 착수와 함께 지진제를 지내고, 청사 공사 착수도 가까운 시일 안에 동시에 실행하기로 결정했다.”¹¹⁾

2-2. 부지의 장소성

위 내용 중 도청사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핵심적 결정기준이 ‘대전역 앞 직선 도로와 맞닿은 토지’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전의 식민지 도시화에서 이 직선 도로의 공간적 중요성과 도청사 부지의 장소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중앙로’라고 불리는 대전역 앞 직선 도로는 대전시가지가 대전천 서쪽 은행동과 선화동으로 뻗어나가 도심 형성의 모태가 된 가로였다. <그림



<그림 2> 1910년대 말 대전 지도 (출전:대전의 지도)

2>의 1910년대 말 대전의 지도에는 대전역 앞에 형성된 시가지 서쪽으로 왼편에 춘일정(春一町) 1정목(현 중동)과 2정목(현 은행동), 오른편에 목척리(木尺里) 사이를 관통하는 직선 가로가 표시되어있다. 이 직선 가로는 원래 1912년 10월 대전역에서 공주 도청소재지로 통하는 가도로 개설되었다.¹²⁾

애초에 대전시가지는 대전역 주변 원동, 인동, 중동 일대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일대에 대전경찰서의 전신인 ‘한성영사관경찰대전순사주재소’를 필두로 1907년에 대전우편국과 대전소방대, 1909년에 대전재판소 등의 관공서가 설치되고 1911년에는 공립보통학교도 세워졌다. 같은 해 일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전어체시장’(현 중앙시장)은 대전역 앞 시가지가 서쪽으로 확장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로써 1912년 대전교 가설과 함께 공주가도가 개설되면서 대전시가지는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방면으로 확대되어 나갔던 것이다.

대전역 앞 직선 도로가 대전시가지 확장의 기본 축을 형성하면서 대전의 상징 가로로 부각된 것은 1929년 대전신사가 대흥정에 건립

11) “忠南道廳廳舍建築決定”, 『朝鮮と建築』 第10輯 第6號, 1931, p. 38.

12) 『大田市史』 第1卷, p. 606.

되면서부터였다. 일인거류민들은 1926년 대전 신사숭경회(大田神社崇敬會)를 창립해 현 대흥동 성모여고 자리 구릉지에 대규모 신사건립을 주도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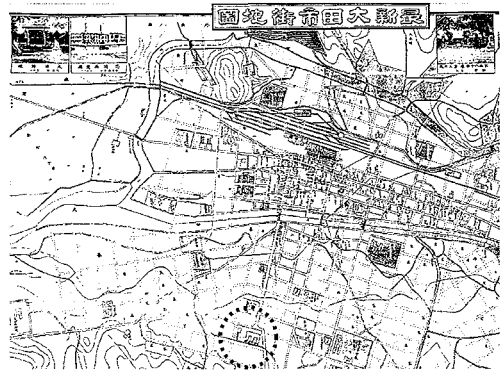
원래 일제는 대전역 개설 이후 일본거류민이 증가하자 1907년 대전역 동편 소재동에 대전신궁을 세웠다. 국권침탈 이전 대전신궁의 기능은 주로 일인들의 결속과 단결을 위한 정신적 구심점 역할 정도였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신사의 의미는 차원을 달리 했다. 이는 일제에게 군대와 관공서 배치만큼이나 중요한 식민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신사는 조선인들을 상대로 황민화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식민지 지배의 상징적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다.¹⁴⁾ 나아가 이러한 기능은 국가신도체제(國家神道體制) 아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지배’를 위한 도시시설 중 하나로 제사를 통해 식민지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였던 것이다.¹⁵⁾

실제 대전신사의 규모는 현 성모여고 부지 전체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규모면에서 1914년 대구 달성공원 안에 건립된 대구 신사보다 더 큰 것으로, 실제로 대전신사는 20개월에 걸친 대규모 공사로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이처럼 대전신사 건립으로 대전역 앞 직선 도로는 기능적인 가로로 넘어서 대전지역 식민정책 수행과 유지의 척추에 해당하는 핵심 상징 가로가 되었다. 바로 이 상징 가로의 서쪽구간 직선 도로가 끝나는 장소에 충남도청사 부지가 위치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가지 공간배치에서 보면 도청사 부지는 배후에 새로 이전한 대전신사를 두고, 대전역과 뒤편 솔랑산 옛 대전신궁 자리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가지 배치의 기본 성격은 <그림 3>과 같이 1933년 충남도청 대전 이전 1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최신대전시가지도’(最新大田市街地圖)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 지도는 대전신사와 충남도청사의 사진을 왼쪽 상단에 나란히 소개하고 있다. 이 둘은 대전역과 함께 대전시가지의 상징경관을 이루는 기본 축이었던 것이다.

2-3. 건축내역

1931년 6월 15일 기공식을 한 충남도청사는 1931년 12월에 상량식을 하고, 1932년 8월 29일에 준공되었다. 도청사 신축에 관한 상세한



<그림 3> 최신대전시가지도(1933년 충남도청 이전 1주년 기념사진 부착 대전시가지도)

(출전: 대전의 지도). 아래 점선 표시 부분이 도청사

내역은 1932년 『조선과 건축』 10월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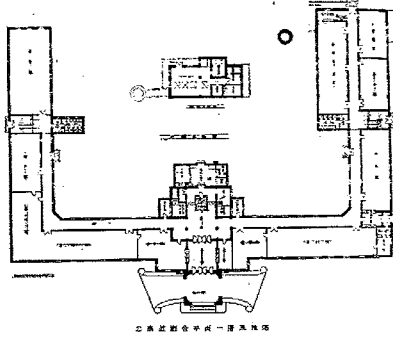
도청사는 “부지면적 6000평, 건축면적 지하 42.402평, 일층 718.748평, 이층 690.24평과 외부 현관 등의 19.56평을 포함해 총 1,452.39평. 건물 높이는 지반면에서 파라펫(parapet) 상당까지 37척, 지반면에서 1층 바닥면까지 3척. 지반면에서 2층 바닥면까지 15.65척. 벽체 벽돌조

13) 『大田100年史』第1卷, p. 462. 현 성모여고 자리 구릉지는 충남도청 관사가 위치한 수도산(옛 망월산)과 함께 옛 백제의 테미석 도성 자리로 추정되고 있다.

14) 橋谷弘,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2004, pp. 94-97.

15) 井井哲仁, “계획의 식민지 / 일상의 식민지: 도시사의 시각”, 한국건축역사학회 2007년 3월 학술발표회 『식민지 도시의 근대』 발표문, pp. 45-50.

16) 『大田100年史』第1卷, p.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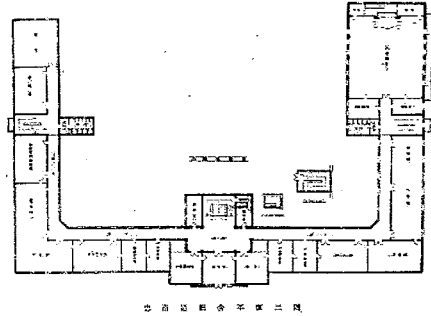


<그림 4> 본관 1층 평면도

(출전: 『朝鮮と建築』 第11輯 第10號, p. 20)

2층 구조에 바닥 및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적용. 외벽 마감재로 정면 및 측면은 타일, 다리와 파라펫 마감은 화강암, 표면은 벽돌, 창문틀은 강철로 마감. 내부 마감재로 현관 바닥에 화강암, 현관 및 중앙 계단에는 대리석, 입구 홀은 타일, 복도와 화장실은 타일, 일반 사무실은 리놀륨 장판, 회의실 및 식당은 플로어링 블록, 도지사실과 응접실에는 목재를 사용. 현관 및 홀, 복도 및 일반 사무실의 벽은 회반죽을 썼고, 대회의실에는 셀로텍스와 수성도료를 사용. 계단은 대리석과 타일 재질로 마감 외에도 청사에는 방화용 철문을 다섯 군데에 설치. 초상화 봉안고는 2층 대회의실 뒤편에 설치하고 여기에 금고식 철문을 달았다. 본관에는 높이 110척의 난방용 굴뚝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정상에 피뢰침설치. 총공사비 170,065.55원. 시공자는 스스키 겐지로(須須木權次郎), 난방위생공사는 스키야마(杉山) 제작소, 전기공사에는 홍전사(弘電社), 이화양행(怡和洋行), 일본전기주식회사(日本電氣株式會社)가 참여, 실내장식은 요코야마(横山) 상점과 타카시마야(高島屋)가 맡았다.”¹⁷⁾

위의 <그림 4>와 <그림 5>의 평면도와 같이 도청사 본관은 원래 벽돌조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3층 구



<그림 5> 본관 2층 평면도

(출전: 『朝鮮と建築』 第11輯 第10號, p. 21)

조이다. 이는 해방 후 1960년에 넓은 창을 지닌 3층이 증축되었기 때문이다. 청사의 평면은 ‘ㄷ’자형을 이루고, 양식적으로 1930년에 설계된 평안남도청과 유사하다. 외벽 마감재로 사용된 스크래치 타일은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도쿄제국호텔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본관 내부에 들어서면, 바닥과 벽이 석재로 마감된 현관에 아치 형태의 천장이 눈에 띄고, 아르데코풍의 2층 계단 난간이 부분적으로 1920년대 말 기계시대(the Machine Age)의 미학적 특징을 보인다.

한데 도청사 외벽을 비롯해 현관, 홀, 2층 계단실과 복도 등의 천장에서 확인되는 문양에 관한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문양에 대해서는 위의 『조선과 건축』에 요코야마(横山) 상점과 타카시마야(高山)¹⁹⁾가 실내장식을 맡았다는 사실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도안가, 제작의도, 과정 등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경성부청사의 문양 역시 도안가가 따로 밝혀져 있지 않듯이, 대부분 ‘익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물과 장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랜

18)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보고서』, 대전광역시, 2003. 4, p. 122.

19) 타카시마야는 1831년 교토에서 헌옷과 무명상으로 시작한 회사로서 오늘날 백화점 등의 유통업을 주로 하고 있다.(www.takashimaya.co.jp)

17) 『朝鮮と建築』 第11輯 第10號, pp. 19-20.

건축사적 전통과 앞서 밝힌 도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각별히 상징성을 고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설계 시 일관된 지침에 따라 문양이 함께 다뤄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도청사는 일반 건물보다 더 건물의 목적에 부합되게 충실히 설계될 수밖에 없는 관공서 건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청사 문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다음에서 연구자는 도청사 벽면 문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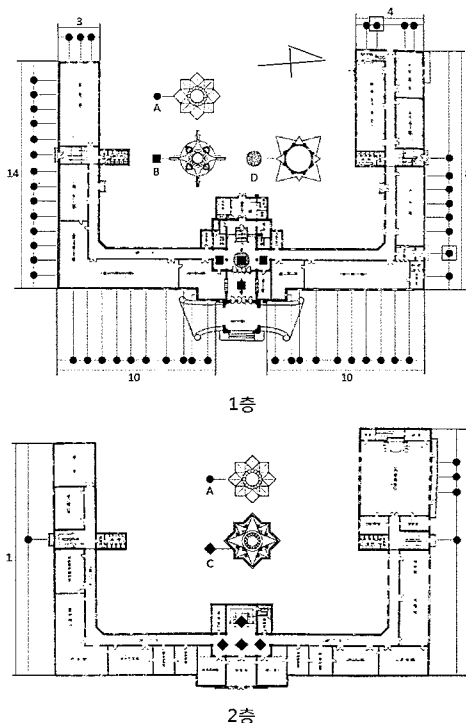
<그림 6> 북쪽 출입구와 연결다리

3. 도청사 벽면 문양 분석

3-1. 위치와 형태 분석

충남도청사는 평면이 'ㄷ'자형을 이루고, 건물 정면이 대전역과 마주하도록 동쪽을 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청사는 정면 현관을 중심축으로 좌우가 남북으로 대칭을 이뤄 마치 양 날개를 지닌 형상을 이룬다. 조사 결과, 앞서 연구자가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언급한 외벽 문양은 현재 현관을 중심으로 남쪽 28개, 북쪽 25개로 총 53개소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북쪽 뒷면 출입구 상단에서 1981년에 시험적으로 제거해서 흔적만 남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현존하는 외벽 문양은 총 52개임이 확인된다. 이는 1995년에 조사된 내용과 일치한다.²⁰⁾

그러나 연구자는 그림 6의 북쪽 벽면의 출입구 상단에 1개의 문양이 추가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는 도청사 북쪽 출입구 위에 충남지방경찰청과의 연결다리를 설치하면서 1개의 문양이 유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외벽 문양은 발코니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1층 창문과 2층 창문 사이에 규칙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르면 원래 외



- A: 외벽 문양
- B: 1층 천장 문양
- C: 2층 천장 문양
- D: 홀 바닥 문양

<그림 7> 본관 내외부 문양의 위치와 외벽 문양 수량 파악도(1층 외벽 문양 중 □ 표시는 유실된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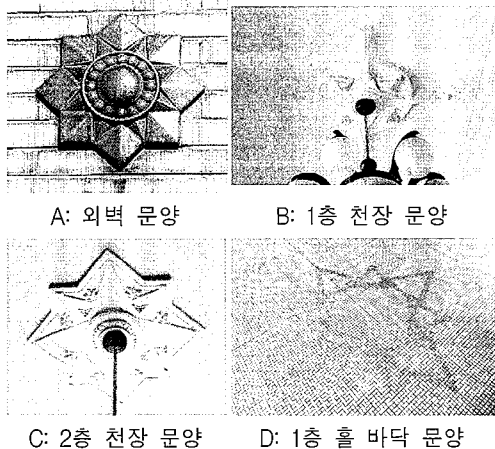
벽 문양은 기존 조사에서 밝혀진 53개소가 아니라 총 54개소로 추정된다.

그림 7은 총 54개소의 외벽 문양의 위치와 수량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문양은 1층과 2층 창문 사이에 1개소씩 위치해 있으며, 발코

20) 徐奉植, 위의 글. pp. 6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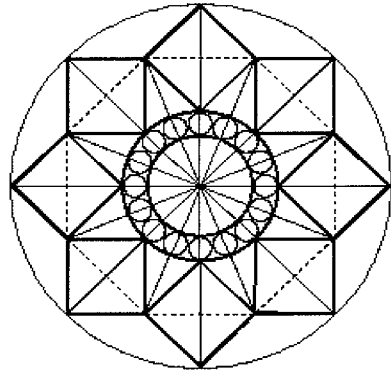
니가 있는 경우, 작은 발코니에는 각기 1개씩, 긴 발코니에는 3개씩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림 7에 표시했듯이, 도청사 본관 내부에는 이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문양이 1층 현관 천장, 홀 바닥과 천장, 2층 계단실과 도지사실 앞 천장에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먼저 1층에서 확인한 것은 현관 천장 1개소, 홀 바닥 1개소, 홀 천장에 3개소이며, 2층에서는 계단실 천장 1개소와 도지사 집무실과 회의실 문 앞 복도 천장 3개소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파악한 내외부 문양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A: 외벽 문양'의 형태는 기본형이 가운데 2개의 원을 중심으로 외곽에 엮여진 2개의 사각형 조합이 8개의 꼭지점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자는 이를 도면화



<그림 8> 본관 내외부 문양의 유형

하는 과정에서 외벽 문양이 작도법에 의해 정확하게 형성된 도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예컨대 <그림 9>의 도형 작도에서 잘 드러나듯이, 이 문양은 중심의 두 원 사이에 16개의 구슬과 같은 형상들이 마치 태양을 에워싸고 있는 위성처럼 배치되어있다. 또한 이는 8개의 햇살무늬가 원의 중심에서 뻗어나가 외곽에서 엮여진 2개의 사각형과 결합해 빛을 방사하는



<그림 9> 도청사 외벽 문양의 도형 작도

효과를 입체화한 형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청사 외벽 문양에서 발견된 이러한 조형 요소들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연구자는 일본 문장학 관련 사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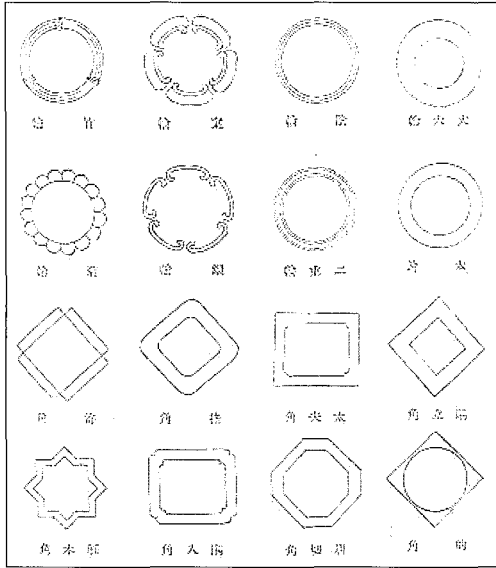
일본 문장학자 沼田賴輔에 따르면, 그것들은 <그림 10>과 같이 오래 전부터 일본 가문의 문장에서 사용된 여러 분류체계 중에서 특히 '태양륜'(太陽輪), '국화륜'(菊花輪), '안목각'(雁木角) 문장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그림 11)²¹⁾

도청사 외벽 문양은 내부에 태양륜을 중심으로 16잎의 국화륜이 에워싸고, 이로부터 8방으로 햇살이 뻗어나가 외곽에서 2개 사각형이 엮여진 8각의 안목각으로 구조화된 빛의 형상을 이룬다. 이는 중심의 태양륜이 일본의 태양, 곧 히노마루(日の丸)이자 '천황'을 뜻하며, 국화륜은 일본의 국화(國花)로서 '황실 문장'임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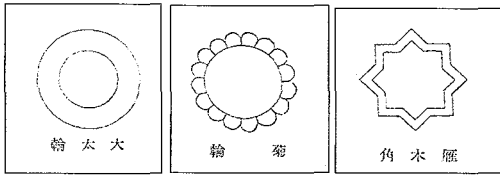
안목각의 경우, 계단을 닮은 다각형 형태를 이루며 마치 날아가는 기러기의 행렬을 닮았다고 하여 기러기 '안'(雁)자를 붙여 '안목각'(雁木角)이라 부르는데,²²⁾ 이는 오래 전부터 일본 가문에서 햇살 등을 상징하는 문장의 요소였던

21) 沼田賴輔, 『(綱要)日本紋章學』, 明治書院, 1928, p. 22, 24.

22) 위의 책, p. 25.



<그림 10> 일본 문장학에서 규정하는 가문의 문장 분류와 명칭 (출전: 沼田頼輔, (綱要)日本紋章學)



<그림 11> 태양륜, 국화륜, 안목각 (왼쪽부터) 것이다.²³⁾

이처럼 도청사 벽면 문양은 일차적으로 눈에 띄는 도안의 요소만으로도 건물의 장식적 효과만을 고려한 단순한 문양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사 문양은 단순한 건축적 장식 문양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상당한 ‘문장’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남도청사 벽면 문양은 주로 부차적인 건축적 장식의 차원에서만 검토되었다. 예컨대 1995년 ‘향토연구’(충남향토연구회 발간) 제17집에 실린 한 보고서는 몇몇 전문가들의 조언에 기초해 도청사 벽면문장이 상징성이 배제된 단지 장식적 효과만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의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충남도청사는 일본이 서양 건축양식을 활발히 도입 활용하던 1930년대에 지어졌기에 청사 벽면의 문양은 서양 건축을 모방하고 건축물의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도청사 문양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서양 각국에서 사각형 2개를 이용해 엮은 형태를 기본 ‘틀’로 한 무늬로서 건축물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무늬는 특별한 의미나 상징성을 내포했다고 보기 곤란하며 당시 건축물에 장식을 하기위해 부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셋째, 충남도청사 건립 당시 일본에서 출판된 건축사 관련 서적에는 서양 건축 무늬의 흐름이 근세와 현대로 갈수록 상징적 성격보다는 미적 감각을 표현한다고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넷째, 당시 동경미술학교(현 동경예술대학) 시라하마(白濱微)교수가 저술하여 당시 교재로 사용한 ‘도화교수의 이론과 실제’에는 정4각형을 겹쳐 다양하게 의장 장식화하는 기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위 보고서는 도청사 벽면 문양을 ‘상징성이 배제된 순수한 미적 감각의 장식’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밝혀졌듯이 순수한 미적 감각의 단순한 문양으로 볼 수 없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본관 내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의미체계들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본관 내부 1층 현관과 홀, 2층 계단실, 복도, 도지사실 천장 등 곳곳에는 ‘조선총독부 문장 요소’와 결합된 문양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도청사 내부의 장식 문양들과 조선총독부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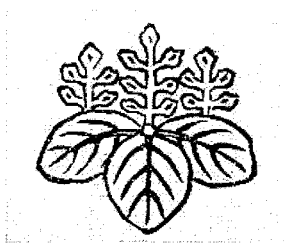
23) 『日本の家紋』, 靑幻舎, 2004, p. 51, p. 300.

24) 徐奉植, 위의 글, p. 68.

보기로 한다.

3-2. 조선총독부 문장과의 관련성

원래 총독부 문장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표상에서 유래한 오동나무 꽃잎 문장, 즉 ‘고시치노기리’(五七の桐, 이하 총독부 문장으로 호칭)로 알려져 있다. <그림 12>의 총독부 문장 도안은 아래쪽에 3장의 오동잎과 그 위에 좌우 대칭의 5장의 오동꽃 사이로 솟은 7장의 오동꽃이 특징이다. 이 문장은 일제와 한 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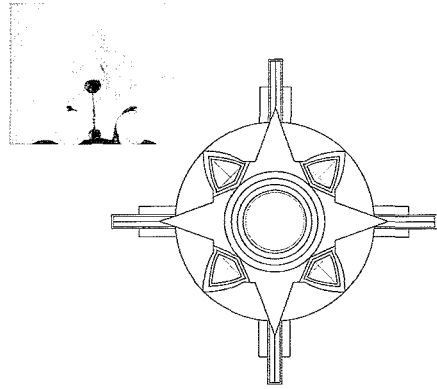


<그림 12> 조선총독부 오칠동(五七の桐) 문장
1911.6.9일자 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도판 그림

이룬 동화정책과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상징으로 국권침탈 직후부터 조선지배의 식민통치를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이 문장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이 훈령은 각 소속 관서에 따라 적용해야 할 문장 도안을 도판으로 명시해 규정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1911년 6월 9일 관보에 공포한 ‘조선총독부 및 그 소속관서 직원의 금장에 관한 부령(부령 제69호)’ 등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²⁵⁾ 이 훈령의 요지는 총독부 소속 관서의 모든 직원들은 제복 옷깃에 오동꽃잎 문양의 금장(襟章)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이 훈령은 각 소속 관서에 따라 적용해야 할 문장 도안을 도판으로 명시해 규정했다.

일제는 무단통치를 위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직원복제에 관한 칙령을 공포(1911.5.31)한데 이어, ‘일본의 국체’를 상징하는 오동꽃잎 문장을 제복 금장에까지 적용하도록 총독부령으로 공포했던 것이다. 이 훈령은 3.1운동 직후 무단통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어 칙령 제403호(1919.8.19 공포/ 8.31 시



<그림 13> 1층 천장 문양의 도형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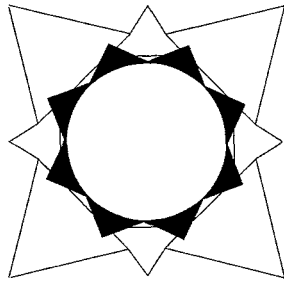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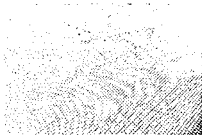
행)에 의해 폐지되었다.²⁶⁾

이처럼 1919년 말에 제복 등 직원복 제에서 일본의 국체를 상징한 오동꽃잎 문장은 폐지되었지만, 1932년에 건립된 충남도청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선총독부 문장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새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도청사 문양들은 아무런 상징적 의미가 없는 단순히 미적 감각을 위한 장식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문장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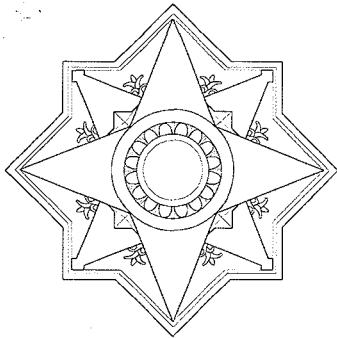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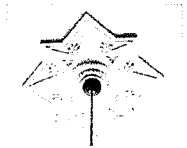
도청사 내부 문양 중에 1층과 2층 천장 문양의 도안은 얼핏 보기에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구 결과, 1층 문양은 2층의 것으로 확장 변형되는 생성과정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그림 13>의 1층 천장 문양의 도형 작도를 보면, 이 문양은 조형적으로 둥근 상들리에 지지대가 고정된 가운데 원형에서 4방향으로 삼각형의 꼭지점이 뺀어나가고, 각 꼭지점 사이에 4개의 새로운 뿌리가 돌아나는 형상을 이룬다. 특이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생성 과정이 1층 홀 바닥 타일에 새겨진 문양에서도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그림 14>의 작도에서 잘 드러나듯, 바닥 문양에는 새로 돌아나는 뿌리의 정체가 암시되고 있다. 이는

25) 『朝鮮總督府官報』第232號, 1911.6.9. 朝鮮總督府印刷局, pp. 63-64.

26) “복제의 변천”, 김철변천사,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



<그림 14> 1층 홀 바닥 문양의 도형 작도



<그림 15> 2층 천장 문양의 도형 작도

<그림 15>의 2층 천장 문양의 도형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조선총독부 문장의 요소인 오칠동(五七桐) 꽃의 뿌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2층 천장 문양은 1층 천장과 홀 바닥 타일 문양의 연속적 생성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중심원에서 4방으로 뻗어나간 4개 삼각형 사이에서 4개 오칠동꽃이 활짝 피어오른 형상을 하고 있다. 이를 작도해 도형을 그려보면 위의 <그림 15>처럼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도청사 내부 문양이 궁극적으로 총독부 문장의 핵심요소인 오칠동꽃을 통합시켜 완성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5장의 오동꽃 사이에 솟아오른 7장의

오동꽃을 꽃술형태의 꼭지점이 있는 큰 삼각형으로 추상화시킨 점이다. 한데 이 삼각형 속에는 또 다른 오칠동꽃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이는 오칠동꽃의 끊임없는 발아 과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4방향으로 뻗어나간 삼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해 2개의 엇접친 4각형을 형성하고 8각의 안목각을 구축함으로써, 마침내 4방8방으로 옥일승천하는 팽창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들리에를 고정시킨 천장 지지대의 가운데 원형은 일본의 태양을 뜻하는 ‘히노마루’(日の丸), 곧 천황을 표상하고, 이로부터 4방8방으로 뻗어나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햇살 속에 4개의 오칠동꽃이 피어나는 상징성을 집약한 것이다.

이렇듯 2층 계단실 천장을 비롯해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응접실 등 천장에서 발견되는 문양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요소와 체계에 기초해 조금씩 변형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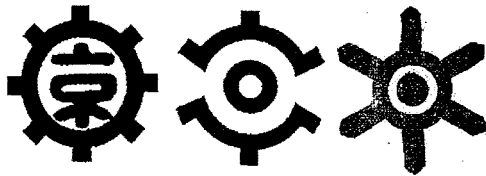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 도청사 내부 문양 역시 단순한 장식 문양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상당한 ‘문장’이었던 것이다. 또한 도청사 외벽 문양은 내부 문양에서 드러난 총독부 문장의 요소인 오칠동꽃 요소만을 제외한 이 모든 상징적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총독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소속 관서이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약칭)로서 충남도청을 표상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3-3. 조선 지자체 경성 문장과의 관련성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1920년 7월부터 제2단계 식민통치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에 행정력을 침투시켜 민족분열을 획책하기 위해 지방자치체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전면의 경우 일종의 협의회 기능의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그해 11월 선거를 통해 면협의회의 의원을 선출했다. 그 결과 총 1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이 중 한국인은 1명뿐이었다.²⁷⁾ 이는 협의회 제도의 목적이 일본인과 소수 조선인 재력가를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장악과 일본인의 정치력 및 이권 획득이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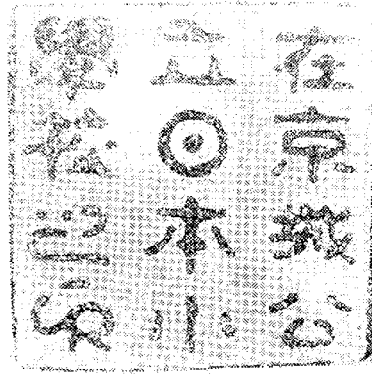
이렇듯 1920년 조선에서 일본을 모방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급 관공서와 행사에 총독부 문장과는 구별되는 ‘지자체 문장’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그림 16>에서 보듯이, 경성은 이미 지자체 실시 이전인 1918년에 총독부 문장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장을 따로 제정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1926년에는 기존 문장을 개정하고 정·목(町·目) 입구의 가로시설물 등에 폭 넓게 사용하기도 했다.



<그림 16> 왼쪽부터 경성부 문장(1918), 개정된 경성부 문장(1926), 도쿄시 문장(1889)

1918년에 제정된 최초의 경성부 문장은 가운데 원형을 중심으로 마치 빛이 방사되는 것과 같은 형상이 특징이다. 이는 가로시설물 등의 적용 사례에 따라 가운데 원 내부에 경성의 ‘京’자를 한자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도안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태양을 상징하는 ‘히노마루’(日の丸)로서 전서체 ‘날 일’(日)자 기본형에서 유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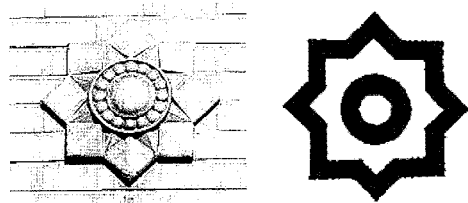
예컨대 위의 <그림 17>에서 보듯이, 재경성 공립일본소학교장 직인 속의 ‘日’자는 이러한 도안의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충남도청사 외벽 문양의 중앙에 있는 원형의 유래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7> 재경성 공립일본소학교장 직인

따라서 <그림 18>에서 보듯이, 서울시가 해방 후 1947년에 제정해 1996년까지 49년 동안 사용했던 상징마크가 충남도청사 외벽 문장 요소 중 태양륜과 햇살 안목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매우 역설적인 사실이다.

이렇듯 충남도청사 문장에 적용된 도안의 발상과 기법은 경성부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지자체들이 제정했던 문장 도안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경성부 문장은 <그림 16>에서 보듯, 당시 일본 도쿄시 문장에 기초해 도안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는 충남도청사 문양 도안이 기존 일본 내 지자체 문장 도안의 발상과 기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고, 일본 지자체 문장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해 그 도안 요소의 정체와 상징적 의미 등을 조사해 보기로 한다.



<그림 18> 충남도청사 문장(왼쪽)과 (구)서울시 상징마크(1947-1996, 오른쪽)

27) 『大田100年史』 第1卷, p. 434.

3-4. 일본 지자체 문장과의 관련성

1858년 안정5개국조약(安政五個國條約)을 체결하면서 개항한 일본은 급속히 서구를 학습하며 19세기 말에 근대국가 체제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방정부 조직을 2단계 구조로 정비했다. 이는 중앙정부 밑에 오늘날 우리의 시도(市道)에 해당하는 ‘都道府縣’을 두고, 그 아래 우리의 시읍면에 해당하는 ‘市町村’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²⁸⁾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자치적 의식이 고취되면서 문장 제정의 필요성이 생겨났는데, 도쿄시(1889)를 필두로 교토시(1891)가 지자체 문장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다이쇼시기(大正, 1912-1925) 초에는 “모든 구폐를 버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기운에 편승하여,” “부흥하는 일본의 선명한 상징의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지자체 문장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²⁹⁾ 점차 지자체 문장이 시정촌을 상징하는 시각적 표상으로서 문자로 표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기 좋고 효과가 크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예컨대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은 1914년부터 일 년에 걸쳐 지자체 문장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기획물을 연재했다. 이 기획물은 1915년 도쿄아사히신문사 기자 치카후지 하루오(近藤春夫)에 의해 ‘도시의 문장: 자치체의 휘장’이란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³⁰⁾ 이 책은 인구 일만 안팎의 소도시 이상의 일본 자치체 문장 90여개의 사례를 외국의 사례와 함께 상세히 다뤘다. 이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 문장은 원래 왕실에서부터 개별 집

안의 씨족공동체에 이르는 가문의 문장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개인의 문장보다 지자체 문장의 필요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 또한 매우 다양했다고 한다.

따라서 지자체 문장은 시정촌(市町村) 사무소나 군청 등에서 위생, 교육, 수세, 토목, 수도, 하수, 청소, 군사, 소방 등 각 방면의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었던 것이다. 1915년에 내무성 지방국장 渡邊勝三郎은 지자체 문장이 공동체적 관념을 새롭게 다지고, 마치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설파했다.³¹⁾

일본 지자체 문장은 초창기에는 알아보기 쉬운 간단한 형상 위주로 도안되었지만 대부분 상징적 의미에 기초해 제정되었다. 문장학자 沼田頼輔에 따르면, 일본의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이 만들어진 경우는 드물며, 대체로 특정 의의(意義)에 기초한 것으로, 그는 이를 분류해 엽승적(揶揄的, 주술적), 상무적, 역사적, 서상적(瑞祥的), 종교적 의의로 규정했다.³²⁾ 여기서 ‘엽승’, 즉 주술적 의의란 악귀를 내쫓고 복을 부르는 향마초복(降魔招福)이나 장수와 무재를 기원하는 연수식재(延壽息災) 등과 관계한다. 역사적 의의란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문장을 뜻한다. 서상적 의의는 경사스런 사물을 통해 복을 부르는 문장의 의미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의의는 십자가 상징과 같은 종교적 의미를 뜻한다.³³⁾

이와 같이 일본 지자체 문장은 특별한 의미 체계로 만들어졌으며, 다이쇼시기에 이르러 문장에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되는 독자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이다.

28) 조창현,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동아일보사, 1988), p. 119.

29) 近藤春夫, 『都市之紋章: 自治體の徽章』, 行水社, 1915. p. 5.

30) 위의 책.

31) 渡邊勝三郎, “讚辭”, 近藤春夫, 『都市之紋章: 自治體の徽章』, 行水社, 1915. p. 121.

32) 沼田頼輔, “紋章の意義”, 위의 책, p. 141.

33) 沼田頼輔, 위의 글, pp. 141-151.

당시 문장학자 沼田賴輔는 일본에서 문장제정의 유래에 대해 밝히면서, “그동안 일본 지자체 문장이 옛 번주(藩主)의 문장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자치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지자체 독립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³⁴⁾ 그러나 당시 일본 사회에서 지방자치의 독립성은 천황제 파시즘 속에서 고려되는 한계를 지녔다.

<그림 19>에서 보듯이, 1889년에 제정된 도쿄시(東京市)의 문장은 태양륜을 중심에 두고 외곽에 거북 등딱지 모양의 귀갑형(龜甲形)이 특징이다. ‘東’자를 변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문장은 ‘京’자를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간단하지만 교묘한 도안으로 평가되었다. 이 문장은 1918년 제정된 경성부 문장의 기원을 잘 보여준다. 경성부 문장은 처음에 도쿄시의 6방 귀갑형 대신에 8방 가지를 외곽에 두고 가운데 원 속에 ‘京’자를 위치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1926년에 변경한 경성부 문장은 동경시 문장의 원형이 지닌 의미에 충실하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그림 16) 즉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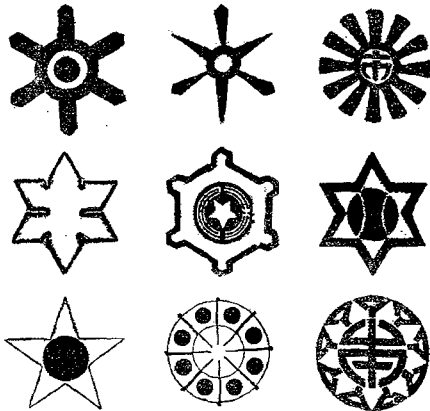
태양륜을 두고 외곽의 6방 가지가 ‘京’자를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도록 수정된 것이다.

1891년에 제정된 교토시(京都市) 문장의 기본형은 <그림 19>와 같이, 도쿄시의 문장과 거의 같다. 도쿄시의 귀갑형 6방 가지 형태의 끝 모양에서만 차이가 난다. 이 중 세 개는 끝이 굽은 모양 그대로 두고, 세 개만 끝을 가늘게 변형시킨 형상이다. 이처럼 문장 중심에 태양륜을 두고 외곽에 6방내지는 8방 가지를 둔 문장들은 빛이 뺏어나가는 형상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다.

에컨대 사가시(佐賀市) 문장의 경우, 이른바 ‘12가지 아침 햇살’(十二足光の旭)이라고 불리는 가문의 형상을 취했다. 이는 역사적 의의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큐슈의 호족인 ‘龍造寺’ 가문의 문장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도쿄시가 문장을 제정한 1889년(明治22年)에 사가시는 이 가문에 대한 존경심으로 시의 문장을 제정했다고 한다.³⁵⁾

고치시(高知市) 문장은 2개 삼각형을 엮은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충남 도청사 문장의 엮은 2개 4각형의 도안방법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도안되었다. 이처럼 일본 지자체 문장에서는 바깥 테두리를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등으로 형상화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에컨대 홋카이도(北海島)에 위치한 삿포로구(札幌區) 문장의 기본형은 육각형으로, 이는 눈결정체의 형상을 의미하며 홋카이도를 상징한다고 한다. 가운데의 별은 ‘성덕’(盛德)을 뜻해 삿포로가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임을 표현했다.³⁶⁾ 홋카이도의 오타루구(小樽區)의 문장 역시 외곽 테두리가 별모양인데 조형적으로 2개의 엮은 삼각형이 특징이다. 이는 홋카이



도쿄	교토	사가
고치	삿포로	오타루
아사히카와	하치만	쿠마모토

<그림 19> 일본 지자체 문장들

34) 沼田賴輔, 위 의 글, p. 155.

35) 近藤春夫, 앞의 책, p. 90.

36) 위 의 책, p. 94.

도의 눈 모양을 본떴다고도 하고, 북두칠성의 별 모양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중앙의 검은 색 원형은 오타루의 ‘小’자를 형상화했다.³⁷⁾

다음으로 홋카이도 소재 아사히카와정(旭川町)의 문장은 1911년에 제정되었는데 히로히토 일왕이 황태자 시절에 아사히카와에 방문한 역사적 의미를 담기 위해 오광(五光)을 뜻하는 5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모양으로 도안되었다. 여기서 중심의 원은 황태자와 아사히카와(旭川)의 ‘旭’자, 곧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화했다고 한다.³⁸⁾

이처럼 일본 문장의 도형들은 단순히 시각적 장식이 아니라 의미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 중에는 아사히카와정의 5개 꼭지점을 가진 ‘오광’ 문장처럼 수(數)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

후쿠오카현(福岡縣) 소재 하치만정(八幡町)의 문장은 1903년에 제정되었는데, 작은 원을 중심으로 지명이 뜻하는 ‘여덟 번째 번(幡)’의 의미를 살려 8개의 원형을 주위에 배치한 형상이다.³⁹⁾ 이 경우 원의 형태는 조직단위 및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문장 요소에서 발견되는 상징적 의미는 일제 식민지 조선에서 발견되는 유사 문양의 해석에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면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충남도청사 본관에 새겨진 문양 도안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도청사 건립과정, 부

지의 장소성, 건축내역에 관한 건축사적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도청사 벽면 문양에 대해 분석했다.

충남도청사는 일제 식민정책이 제2단계 회유조정 및 문화정책期를 거쳐 제3단계 병참기지화 및 전시총동원期(1931-1945)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건립되어 식민통치의 상징성이 강화된 건축물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도청사 부지의 선정기준에서 드러났듯이, 옛 대전신궁과 대전역을 정면에 마주하고 배후에 대전신사를 뒤편으로써 상징경관을 이루는 장소성을 증시했다는 점에서 뒷받침 된다.

분석결과, 도청사 문양은 이러한 장소성과 함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제국의 문장’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도청사 외벽 문양은 일본 문장학의 요소인 ‘태양륜’(太陽輪), ‘국화륜’(菊花輪), ‘안목각’(雁木角)으로 조합된 디자인임이 밝혀졌다. 이는 일본의 태양(日の丸) ‘천황’과 ‘왕실’, ‘햇살’을 상징하는 문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도청사 내부 1층 현관 천장, 홀 바닥과 천장, 2층 계단실과 복도의 천장 등에 새겨진 문양들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더욱 확실해진다. 즉, 이들은 총독부 문장의 핵심 요소인 오칠동꽃을 통합시켜 완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특히 2층 천장 문장은 가운데 원형이 일왕을 표상하고, 이로부터 4방8방으로 뻗어나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햇살 속에 4개의 오칠동꽃이 피어나는 상징성을 집약한 것이었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해 도청사 문양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부조사가 이루어졌다: (1)조선 내 지자체 경성 문장과의 관련성, (2)일본 지자체 문장과의 관련성.

지자체 문장과의 관련성에 있어, 도청사 문장은 조선총독부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1920년대 이후 실시한 지방자치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1918년 이미 최초로 문장을 제정하

37) 위의 책, p. 95.

38) 위의 책, p. 96.

39) 위의 책, p. 88.

고, 1926년에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해 사용하기 시작한 경성부청의 경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경성부 문장은 1889년 제정된 도쿄시 문장과 거의 같은 요소를 공유해 모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지자체 문장과의 관련성도 함께 밝혀졌다.

일본 지자체 도시의 문장들과의 관련성은 1915년 치카후지 하루오(近藤春夫)가 발간한 '都市之紋章' 중 충남도청 문양의 도안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쿄시, 교토시, 사가시, 고치시, 삿포로구, 오타루구, 아사히카와정, 하치만정의 문장들을 통해 검토되었다. 그 결과 일본 지자체 문장은 단순한 장식문양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체계를 갖고 있으며, 도청사 문양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충남도청사 본관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적 문양이 아니라 의미체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당시 일본의 지자체 문장 도안의 형식과 수법을 사용해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지역의 내선일체 황국신민화의 식민통치를 상징하도록 도안된 특별한 문장이었던 것이다. 이는 물리적 구현체로서 도청사 본관과 동격 내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고도의 상징체였다. 특히 도청사 외벽 문장은 1932년 신축 당시 지자체 식민통치의 '화룡점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들은 건물과 함께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후대에 교훈을 남기는 물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충남도청사 문양을 경성부청 이외의 조선 내의 여러 다른 도시의 문장들과 비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연구과정에서 일차적으로 6대광역시를 중심으로 각 시사편찬위원회에 일제강점기 도시문장의 존재유무를 조회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나 명확한 사료가 발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충남도청사에 사용된 문장이 충청남도의 공식 문장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자는 이 연구의 한계로 밝히며 앞으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한국건축사, 디자인사 및 미술사 연구에 다양한 관점의 교차 시각이 소통되어 건축역사문화연구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 지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Leon Battista Alberti, 『The Architecture of Leon Battista Alberti』, T. Edlin, 1726,
2. 『大田市史』 第1卷, 大田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92.
3. 『大田100年史』 第1卷, 大田直轄市史編纂委員會, 2002.
4. 『大田의地圖』, 大田直轄市史編纂委員會, 2002.
5. 대전광역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대전광역시, 2003.4.
6. 徐奉植, “忠南都廳 本館壁面 裝飾에 대한檢討”, 『郷土研究』 第17輯, 忠南郷土研究會, 1995.
7.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第10輯 第6號, 1931.
8.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第11輯 第10號, 1932.
9. 靑井哲仁, “계획의 식민지 / 일상의 식민지: 도시사의 시각”, 한국건축역사학회 2007년 3월 학술발표회, 『식민지 도시의 근대』 발표문.
10. 橋谷弘,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2004.
11. 沼田頼輔, 『要綱 日本紋章學』, 明治書

- 院, 1928.
12. 近藤春夫, 『都市之紋章』, 行水社, 1915.
 13. 安田英樹, 『日本の家紋』, 靑幻舎, 2004.
 14. 高橋幸八郎 外, 車泰錫 譯. 『日本近代史論』, 지식산업사, 1981.
 15. 조창현,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동아일보사, 1988.
 16. 최원규 역음, 『日帝末期 과시즘과 韓國社會』, 청아출판사, 1988.
 17. 함동주,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창비.

접수(2009. 8. 13)

수정(1차:2009. 10. 10, 2차:2009. 10. 22)

게재확정(2009. 10. 28)

A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 of Pattern Design on the Main Building of Chungcheo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Kim, Min-Soo

(Associate Prof. of Division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ymbolic meaning of pattern designs attached on the main building of Chungcheo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CPG). While most of researches mainly focused on the value and evaluation of the CPG building in terms of architectural history, relatively little insight has been gained on the symbolic meaning and nature of the pattern designs. What kind of connections are related between the emblem of Governor-General of Chosun(Korea) and those of CPG? What symbolic meanings are engraved on the pattern designs? The researcher then took up the task of elucidating symbolic meanings of patterns and their relation to the building.

The existing pattern on the outer wall of the CPG building consists of the symbol of sun(太陽輪), mums(菊花輪), and angle of stairs(雁木角). According to the Japanese studies of emblems, these visual elements symbolize 'the sun of Japan'((日の丸) or 'the emperor', 'the royal family', and 'rays of the sun'. Based on these preliminary findings,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following in-depth connections: (1) relations with the emblem of Governor-General of Chosun, (2) relations with the emblems of local autonomous entity, Kyoungsung in Chosun. (3) relations with the emblem designs of the local provinces in Japan etc.

In conclusion, patterns of the main building were not just an architectural decoration, but they had significant meanings utilizing design elements and methods adopted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Japan. The patterns found at the ceiling and floor of hall in the CPG building were associated with the emblem of Governor-General of Chosun. Therefore, all the patterns of the CPG building are powerful symbols that have meanings for the colonial rule by using the shape and method of city identities that Japanese local provinces had enacted. That is, it came out into the open that they were designed for special meanings that Korean and Japanese are united as a single body(內鮮一體) for a subject of the Emperor of Japan(皇國臣民).

Keywords: Chungcheo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Governor-General of Korea, local autonomous entity, emblem, pattern, symbolic meaning, design,
